

MC : 인천의정중계탑시간입니다. 논란 끝에 동구에 있던 박문여자중·고등학교가 송도로 이전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. 이 원도심 지역의 교육적 낙후를 걱정하는 지역주민과 교육단체들의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교육청이 이전결정을 내린건데.... 참 걱정이 많죠? 오늘은 신도시지역에 비해서 뒤떨어지고 있는 원도심에 교육적 격차를 좀 해소하는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. 인천시의회 권용오 교육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

의원 : 네. 안녕하세요?

MC : 반갑습니다. 논란 끝에 박문여중·고가 송도로 이전하기로 결정이 났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

의원 : 예, 지역주민분들하고 교육단체에서 많은 반대를 했는데 이런 이전결정이 난 것에 대하여 해당 지역교육의원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.

MC : 서구와 동구가 지역구, 선거구가 되는 거죠? 아 왜 이걸 못 막으셨어요?

의원 : 시민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해당 우리 중·동구 구도심권의 여론은 굉장히 이전 반대쪽으로 나왔는데 인천 전지역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다보니까 다른지역에서 여론조사한 것이 찬성이 많이 나와서 결과적으로 7:3정도 비율로 났습니다.

MC : 아니 이걸 전지역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는게 맞는 겁니까?

의원 : 아 문제는 있지만은

MC : 아니 여기 있던 것을 다른 데로 옮기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야지 다른데 의견을 듣는게 말이 되나요?

의원 : 아 저도 그런 의견을 많이 피력했습니다만 결국은 인천시 전체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여론조사에 승복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.

MC : 결과가 나왔으니 승복을 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된다면 인구수가 많은데서 인구수 적은데 있는 학교는 다 가지고 올수 있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? 이런 것도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.

의원 : 문제가 있죠.

MC : 그러면 박문여중·고는 언제 이전을 하게 되는 겁니까?

의원 : 중학교는 2013.3월에 가고 고등학교는 2015년 3월에 이전을 한다고

합니다.

MC : 그렇군요.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? 동구지역에는 여중하고 여고가 한 개도 없어지게 되는 거죠?

의원 : 네, 화도진 여중 하나만 있게 되는 거죠.

MC : 화동진 여중 있고 여고는 없잖아요?

의원 : 여고는 없어요.

MC : 네, 참 문제네요. 그러면 내년, 내후년 이렇게 이전하게 된다고 그러면 지금 재학생들이 송도로 통학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대책이 있습니까?

의원 : 아 중학교는 지금 1학년 학생들이 졸업할 때 까지 시설일부를 잔류 시켜서 계속 하기로 했고요,

MC : 학교가 양분된다는 얘기네요?

의원 : 예, 그렇게 운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졸업할 때 까지 그 쪽에서 학교를 계속 운영하기로, 그래서 통학을 안해도 되는 상황으로

MC : 네, 그게 큰 선심이나 쓰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것 처럼 들리는데 속상합니다. 박문여중·고에 대한 이전 결정은 사실은 뭐 제물포 고등학교를 비롯해서 원도심에 있는 여러학교의 이전 추진 움직임들이 있는데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부분도 대책을 갖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?

의원 : 예, 걱정입니다. 교육청에서는 원도심 학교들을 이전 재배치 하는 것을 기본계획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의원 입장에서 보면은 아 이건 상당히 걱정거리 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교육청의 입장은 노후된 학교 계속 수리만 해서는 감당이 안되니까 이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하겠다는 이런 복안으로 이 계획들을 추진하고 있는걸로 봐 집니다.

MC : 바로 그 부분인데, 박문여중·고 같은 경우는 5년동안인가 유예하기로 하고 교육청예산을 받아간게 있지 않습니까?

의원 : 예, 있죠.

MC :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합의가 되고 약속이 된 것을 이런식으로 뒤집은 것이 문제다 이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?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대로 원도심에 있는 다른 학교들이 이전하지 않을거다라는 것

을 확보가 안된다는 것죠.

의원 : 예, 저희들도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입니다.

MC : 그러게 말입니다. 원도심이 낙후되었다 해서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시점에서 이렇게 되니까 뭐 우리나라 부모들의 교육열은 유명하지 않습니까? 학교가 있는 것을 이전을 하거나 할려고 하겠죠? 이런문제들, 글썄요. 어떤생각을 갖고 이런 결정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. 인천교육청 지금 뭐 교육적 격차가 심한 원도심 지역을 위해서 정책적 방안을 결정한다 뭐 이런보도 있던데 교육청 방안 좀 내용을 미리 좀 보고받으셨습니까?

의원 : 네, 저희들은 보고를 10월 29일날 받은바 있습니다.

MC : 네, 이미 받으셨군요. 어떤 내용인가요?

의원 : 간단히 요약하면은 낙후된 교육환경 이런 것을 5개년에 걸쳐서 보완하고 충실히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. 쉽게 이야기 하면 한 이천억 정도를 5개년에 걸쳐서 투입을 해서 낙후된 시설도 개선하고 우수인력도 우선적으로 배치 해주고 학교에 연구시범학교나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다른 지역 보다 우선적으로 시행을 해주고 그 다음에 교육복지관련 사업들도 보강을 하고 그다음에 학교마다 교과교실제 같은 것도 우선적으로 타 지역보다 시행을 해준다는 이런 내용입니다.

MC : 내용 보고 받으시고 어떠셨어요? 이걸 좀 가능성이 있겠다. 진정성이 있다 이런 느낌이 드셨습니까?

의원 : 조금 미흡합니다. 이 내용들이 81개 학교를 아마 교육청에서 방문을 전부 해가지고

MC : 원도심 지역에 있는 학교를 말씀하시는 거죠?

의원 : 네, 교장선생님하고 운영위원님들 그다음에 교직원 대표들 전부 아마 면담을 하고 이렇게 취합을 해서 이런 의견들을 만든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보기에선 아~ 조금, 좀 성에 안차는 부분이 있다. 이런 견해입니다.

MC : 그럼 시정을 요구하셨습니까?

의원 : 네.

MC : 참 약속은 계속하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이 나는 것을 보면은 원도심에 사시는 분들은 상당히 그 뭘니까?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밖에

없는 결과들이 나오니까, 이런 정책들이 과연 실현 가능한 것 인지
에 대해서 의심도 많이 가지실 것 같은데, 아 의원님은 어떠하십니
까? 교육의원입장에서 원도심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아 이런걸 좀
시행을 시급하게 해야겠다, 그 좀 복안이 있으십니까?

의원 : 예, 복안은 몇가지 가지고 있지만은 아직은 방송에서 할 정도는 아
니고

MC : 알겠습니다.

의원 : 교육청하고 상의를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.

MC : 알겠습니다. 자 지난달 이었죠.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국제화특구라
는 것을 지정을 했는데 인천 연수구하고 서구, 그리고 계양구가 지
정이 되지 않았습니까? 원도심지역인 중구, 동구는 여기서도 배제가
되었어요, 이렇게 된다면 교육청에서 정책적 방안을 발표한다하더라
도 오히려 교육격차는 더 심화되는거 아닌가? 이런 생각이 드는데
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?

의원 : 예, 맞습니다.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
의식을 하고 여기에 대한 교육청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독려
를 하고 있습니다.

MC : 네, 앞서서 앞에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맞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
그렇게 말씀하셨는데, 그 인천교육박물관건립문제는 지금 어떻게 되
어가고 있나요? 원래 창영학교에 세우자 뭐 이런 시민사회의 의견이
있었는데 교육청에서는 강화도에 설립을 추진했었잖아요.

의원 : 네, 교육청 차원에서 실무TF팀을 구성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
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강화도 폐교 부지를 지
정해서 이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용역사업을, 용역을
줘서 용역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물론 뭐 긍정적이라는
용역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, 이런 것 만으로 결정이 다
되지는 않을 것이고 저희들도 특히 저는 창영학교 부지가 타당하다
고 생각을 합니다.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올해 안에 최종
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.

MC : 왜 창영학교가 더 타당하다고 보시는 건가요?

의원 : 아, 역사성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. 그 부분에서 창영학교 부
지가 가장 적합하다고 봅니다.

MC : 창영학교가 우리나라 최초 공립보통학교였던거죠?

의원 : 네, 그렇죠.

MC : 그런 역사성을 감안해서 여기다 세우자,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신거죠? 알겠습니다.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원도심 교육격차해소 염려들을 특별히 원도심 지역에 사시는 분들 많으실텐데 한말씀 해주시고 맏겠습니다.

의원 : 이 원도심하고 신도심하고 교육격차가 많이 나는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봅니다. 서울하고 타 지역하고 교육격차 나뉘듯이 비슷한 문제들인데 이런 부분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시 교육청, 인천시 이런 유관기관에 지속적으로 보완을 요구할 계획입니다. 이것이 바로 인천교육의 업그레이드 시키는 비결이 될 것이고 이런 방향으로 의정활동을 계속할 예정입니다. 그리고 참, 내일이 수능이죠. 우리 딸도 지금 이번 에 수능을 보게 됩니다.

MC : 아 고3이세요.

의원 : 수능보시는 수험생 여러분 내일 시험 잘 보시라고 당부말씀을 드리고 그치겠습니다.

MC : 네 교육의원답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

의원 : 네 감사합니다.

MC : 인천의정중계답이었습니다. 인천시의회 권용오 교육의원과 말씀나눴습니다.